

2023년 충청북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민 참여프로젝트 안녕~감곡!

철박물관 기획전

그동안 **잘** 지냈니?

Qm 철 박물관

2023년 충청북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민 참여프로젝트 안녕~감곡!

철박물관 기획전

그동안 **잘** 지냈니 ?

2023.11.01(수) - 12.23(토)

철박물관 곳곳

상설전시실, 그린하우스, 마트스튜디오



3월 안녕~ 감곡! 프로그램 기획

8월 홍보 시작!

9월 참여 프로그램 운영

11월 전시 시작!

11월 교사 초청 워크숍

12월 전시 끝!

3월~8월 수장고 정리

10월 전시 기획, 작품 설치

12월 도록, 영상 제작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철박물관에서는 모두에게 안부를 전한다.

본 전시는 지난 9월 지역민의 참여로 진행된 '안녕~ 감곡 프로젝트'에서 탄생한 작품으로 만들어졌다.

충청북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본 프로젝트는 코로나19 동안 만남이 뜸했던 지역민을 만나보자는 의도로 시작했다.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우리 지역에 대한 탐구로 관람객이 생각하는 '감곡의 색'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그 색을 '쓰임을 다한 철 물건'에 입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 시간과 다시 탄생한 철 물건이 철박물관 곳곳에 설치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노인복지관, 아동센터, 유치원 등에서 참여하신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과 가족 등 다양한 참여자가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자 했다.

박물관은 충분히 지역민의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역민은 박물관을 편안한 소통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박물관이 전하고 있는 내용은 지역민에게 지지를 얻고 있는지.

그 발견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쓰임을 다한 철 물건에 대한 탐색은 박물관의 대표적인 소장자료 <전기로>에 담긴 고철의 재 활용, '환경'과의 관계로 연결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전시 공간은 한정된 전시실에서 확장해 그린 하우스, 아트 스튜디오로 이어져 박물관의 공간을 새롭게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은 분명했다. 차가울 수 있는 고철이 따뜻한 안부를 오가게 하는 매개가 되었다.

“그동안 잘 지냈니?” 이렇게 계속 모두에게 안부를 물을 것이다. 그리고 더 정겹게 지역민을 맞이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궁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더 가치있게 보관하고 보여질 수 있도록 오늘도 관람객을 만난다.



2023. 11. 01(수) - 12. 23(금)
1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김복남의 '김복남'

그동안 잘 지냈니?

김복남의 '김복남'은 2023. 11. 01(수) - 12. 23(금)까지

2023. 11. 01(수) - 12. 23(금)

김복남의 '김복남'은 2023. 11. 01(수) - 12. 23(금)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연생-갈퀴'의 시작

김복남의 '연생-갈퀴'는 2023. 11. 01(수) - 12. 23(금)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illegible]







Fun Steel

성북 기름집 방앗간

기름파는 사람



전시전경

2023년 충청북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민 참여프로젝트 만남-공국

철박물관 기획전

그동안 잘 지냈니?

본 전시는 9월부터 '만남-공국'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역민의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23.11.01(수) - 12.23(금)

철박물관 공국
상설전시실, 그린하우스, 마트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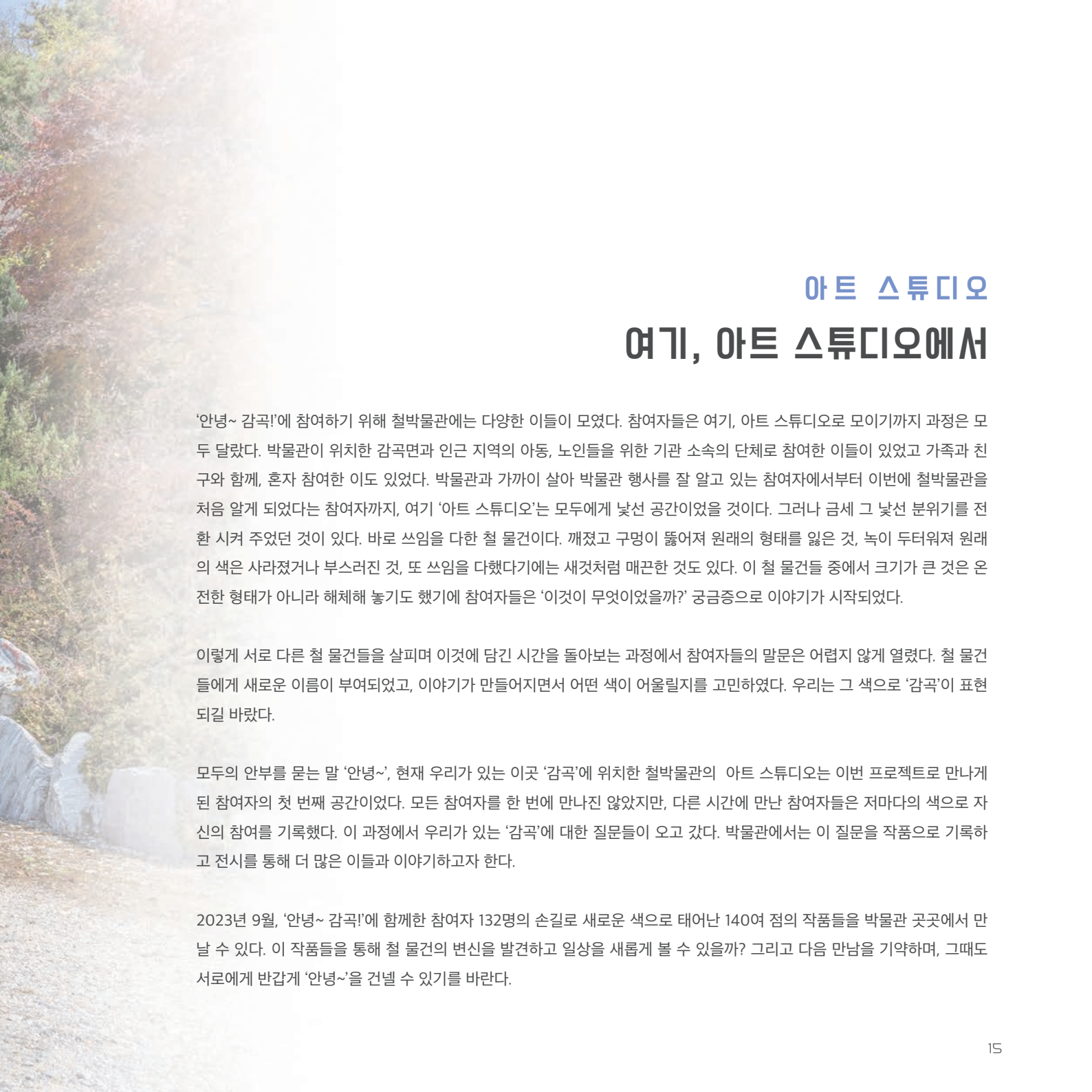
주최  서울박물관 후원  충청북도 주관  서울신문 세원문화재단



목 차

아트 스튜디오	14p
그린 하우스	20p
상설 전시실	28p





아트 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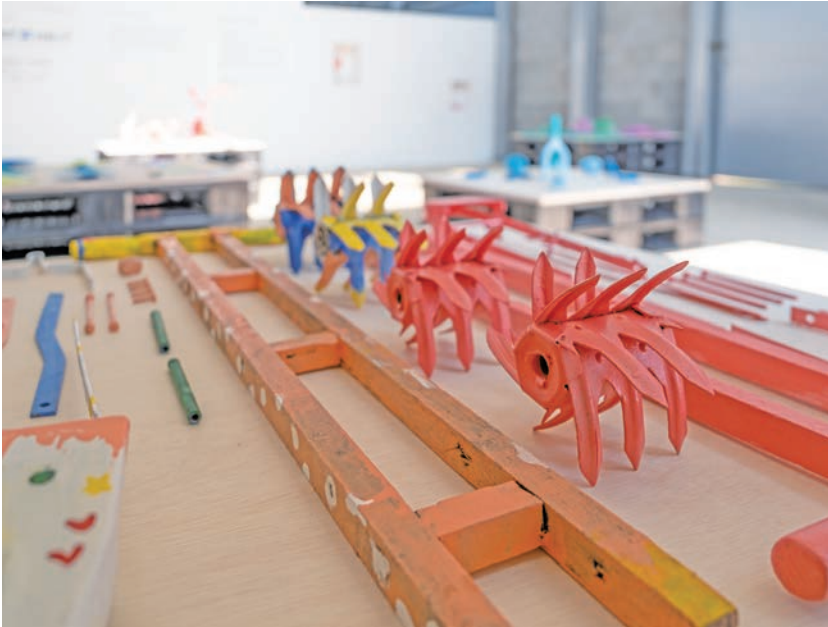
여기, 아트 스튜디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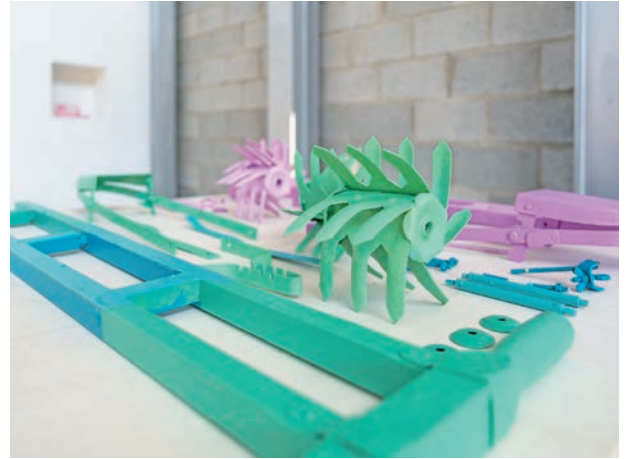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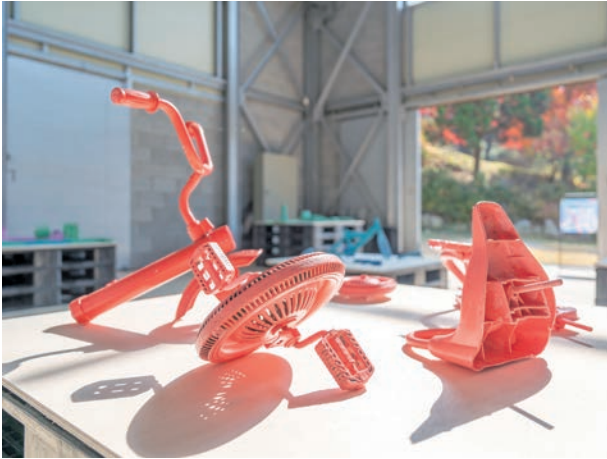
‘안녕~ 감곡!’에 참여하기 위해 철박물관에는 다양한 이들이 모였다. 참여자들은 여기, 아트 스튜디오로 모이기까지 과정은 모두 달랐다. 박물관이 위치한 감곡면과 인근 지역의 아동, 노인들을 위한 기관 소속의 단체로 참여한 이들이 있었고 가족과 친구와 함께, 혼자 참여한 이도 있었다. 박물관과 가까이 살아 박물관 행사를 잘 알고 있는 참여자에서부터 이번에 철박물관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참여자까지, 여기 ‘아트 스튜디오’는 모두에게 낯선 공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세 그 낯선 분위기를 전환 시켜 주었던 것이 있다. 바로 쓰임을 다한 철 물건이다. 깨졌고 구멍이 뚫어져 원래의 형태를 잃은 것, 녹이 두터워져 원래의 색은 사라졌거나 부스러진 것, 또 쓰임을 다했다기에는 새것처럼 매끈한 것도 있다. 이 철 물건들 중에서 크기가 큰 것은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해체해 놓기도 했기에 참여자들은 ‘이것이 무엇이었을까?’ 궁금증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철 물건들을 살피며 이것에 담긴 시간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말문은 어렵지 않게 열렸다. 철 물건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었고,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색이 어울릴지를 고민하였다. 우리는 그 색으로 ‘감곡’이 표현되길 바랐다.

모두의 안부를 묻는 말 ‘안녕~’, 현재 우리가 있는 이곳 ‘감곡’에 위치한 철박물관의 아트 스튜디오는 이번 프로젝트로 만나게 된 참여자의 첫 번째 공간이었다. 모든 참여자를 한 번에 만나진 않았지만, 다른 시간에 만난 참여자들은 저마다의 색으로 자신의 참여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있는 ‘감곡’에 대한 질문들이 오고 갔다. 박물관에서는 이 질문을 작품으로 기록하고 전시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야기하고자 한다.

2023년 9월, ‘안녕~ 감곡!’에 함께한 참여자 132명의 손길로 새로운 색으로 태어난 140여 점의 작품들을 박물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이 작품들을 통해 철 물건의 변신을 발견하고 일상을 새롭게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그때도 서로에게 반갑게 ‘안녕~’을 건넬 수 있기를 바란다.







김유순, 양승진, 양아현, 양재현, 청미복지관



청미복지관



설성어린이집



문가은, 문귀남, 문서준, 신동윤, 신서윤, 신은철, 최동원, 최유주, 최유하



김나정, 갈매기의 꿈



갈매기의 꿈



이진국 외 3명



김현숙, 설성어린이집



그린 하우스

그린 하우스에서 핀 고철

철광석에 열과 힘을 가하여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로 탄생한 철 물건, 언젠가 쓰임을 다한 철 물건은 고철로 버려진다. 또 박물관에 들어와 이리저리한 해석이 더하여 전시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 문을 열어주기도 한다. 나아가 한 시대를 대표하기도 한다.

그린 하우스에는 ‘안녕~ 감곡!’에서 탄생한 작품으로 새로운 느낌이 만들어졌다.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색을 뿜내는 이곳에 다소 인공적인 형과 색이 어우러지고 있다. 전시가 열린 11월부터 그린 하우스의 색은 조금씩 그 생기가 떨어진다. 그런데 고철로 생기가 더해지고 있다. 쓰임을 다한 철 물건이 박물관이 아닌 참여자의 해석으로 새로운 색을 입었다. 그리고 그린 하우스에서 곧 피어날 것 같은 꽃봉오리로, 활짝 핀 꽃처럼 피어난 것이다. 철의 물성이 사라져 그 본래가 가려지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바로 참여자의 이야기가 투영되어 더 가볍게, 더 무거워 보이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생명을 다한 줄 알았던 철 물건, 고철이 또 다른 역할,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박물관은 그 의미를 계속 찾을 수 있는 장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의미를 추적하며 관람객을 만나고 있고, 만나 갈 것이다.



에스원
SEOW

이오



설성어린이집



갈매기의 꿈



갈매기의 꿈, 설성어린이집



갈매기의 꿈



설성어린이집



설성어린이집



갈매기의 꿈



설성어린이집



갈매기의 꿈



김현숙, 갈매기의 꿈



갈매기의 꿈



갈매기의 꿈



갈매기의 꿈



갈매기의 꿈



설성어린이집



설성어린이집



갈매기의 꿈



상설 전시실

'안녕~ 감곡!'의 시작

수장고는 쿼퀴하고 비릿한 쇠 냄새가 가득하다. 이곳에서 업무는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고 밤사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곳곳을 둘러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수장고에는 누군가의 손길을 가득 받고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친근한 생활 도구부터 커다란 기계와 작은 부품까지 '철'로 만들어진 다양한 물건들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여기서 이것들은 비싼 것이든 싼 것이든, 유명한 유명하지 않던 모두가 안전하게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곳에도 유독 마음을 쓰이게 하는 물건들이 있다. 쓰임을 다했거나 부러지고 망가져 수장고 한 편에 자리하게 된 것들이다. 수장고에서 바로 이것들을 꺼내면서 '안녕~ 감곡!'은 시작되었다.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철박물관 소장자료의 아주 적은 일부이다. 상설 전시실에는 철박물관의 소장자료에서 전시품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철 물건과 이번에 새롭게 전시품이 되어 상설 전시실로 들어선 철 물건이 만났다. 그리고 서로 안부를 전한다. “그동안, 잘 지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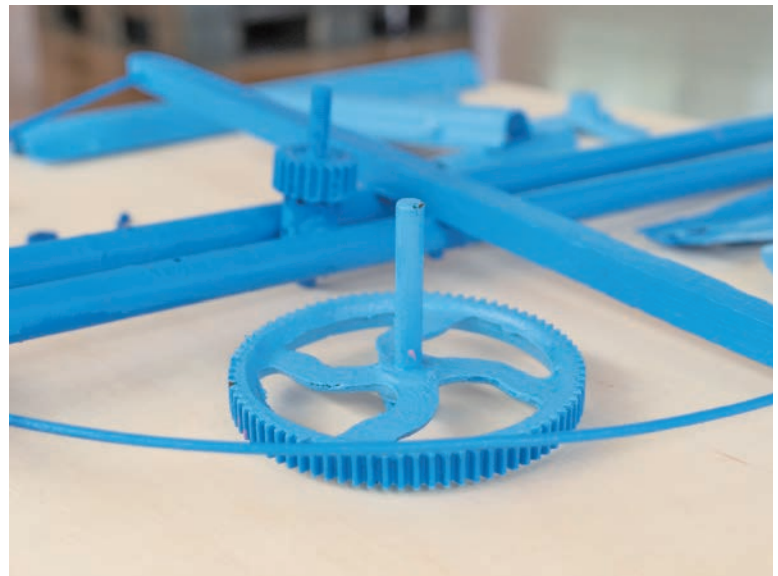








정희경 외 3명





문가은, 문귀남, 문서준, 신동윤, 신서윤, 신은철, 최동원, 최유주, 최유하









공예서
Chunhyang's Artwork
이 작품은 전통 공예 기법인 칠보(七寶)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칠보의 다양한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색상의 칠보(七寶)를 사용하였다.

전남미술관 기획전

그동안 잘



지냈니?

2023.11.01(수) - 12.23(토)



전시전경

철박물관 기획전

그동안 **잘** 지냈니?

2023.11.01. - 12.23.

철박물관 곳곳

10:00-17:00

총괄

장인경

기획

콘텐츠연구팀 권남희, 권선경, 뮤지엄교육연구소

진행

콘텐츠기획팀 이미숙, 장옥희, 조정순

경영지원팀 김도희, 전효재

참여자(기관)

김나정, 김유순, 김현숙, 문가은, 문귀남, 문서준, 신동윤, 신서윤, 신은철, 양승진, 양아현, 양재현, 이진

국 외 3명, 정희경 외 3명, 최동원, 최유하, 최유주

갈매기의 꿈 권서하, 송동안(릉통형), 신주은, 원예주, 원은주, 한겨레

설성어린이집 강민준, 강지호, 견태울, 고도현, 고라온, 권오빈, 김강민, 김근영, 김레노이, 김민재, 김소연,

김유성, 김유정, 김유주, 김유현, 김지율, 김태준, 김하린, 박서영, 배서윤, 서시울, 송민우, 송지훈, 신비,

신가은, 신민수, 안현서, 오세찬, 오예동, 유경현, 유동연, 이도담, 이상윤, 이소윤, 이소율, 이슬찬, 이영

광, 이예나, 이예림, 이예찬, 이지수, 이지윤, 이지후, 이채민, 이채현, 이현성, 임별아, 임이강, 임

태이, 임하린, 장범준, 장승연, 장희찬, 전시윤, 전우주, 정서연, 정소연, 정소정, 정연학, 정우성, 정은아,

조은성, 조하늘, 최규원, 최민제, 최예나, 최하진, 홍유진

청미노인복지관 김봉수, 김점순, 이금순, 이한순, 최동순, 공점순, 박미옥, 박영서, 배옥수, 유재순

한양미술학원 강민준, 강지윤, 김다은, 김태하, 나우림, 나현호, 박민준, 이서윤, 율진, 전우준

영상제작

아하하 아트컴퍼니

주최/주관

철박물관

후원

충청북도, 음성군, 세연문화재단

발행처

철박물관

발행일

2023년 12월 23일

디자인

ahaha. graphic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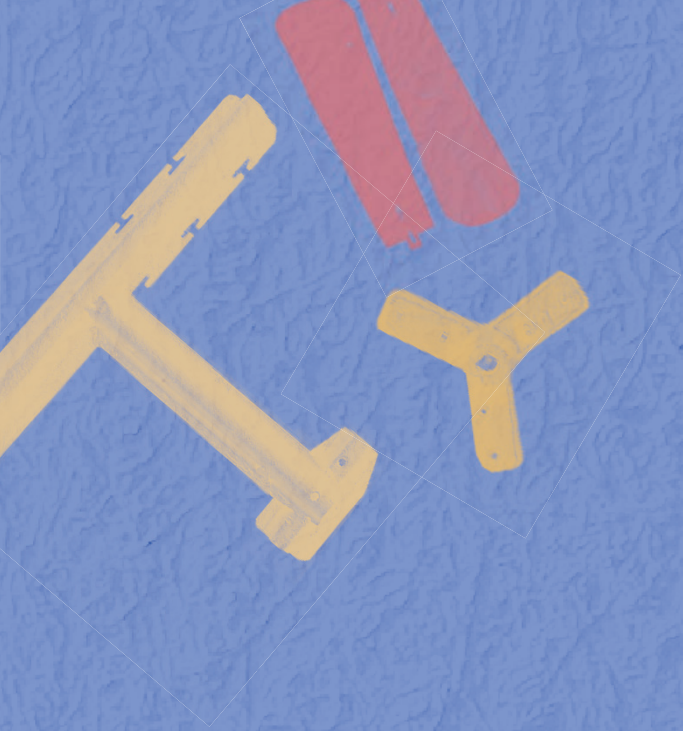
CITY PLAN

ISBN

978-89-960406-6-8

©2023. 철박물관.

이 도록에 담긴 모든 내용은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필요로 할 때에는 반드시 발행인과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주최  철박물관

후원



세연문화재단

비매품/무료



9 788996 040668

ISBN 978-89-960406-6-8 (PDF)